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2004년 인도네시아 해변을 덮친 가공할 쓰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영어 광풍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 파고에 더욱 심해졌다.

온국민 '영어 바다'서 허우적

우리나라 교육부의 1년 예산이 약 30조 원인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31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나 자녀의 영어교육 때문에 생긴 이른바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수준의 정책들로는 해결의 길이 멀어 보인다.

"국민이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나라와 개인이 차이가 나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다"

영어 '쓰나미'

고 있는 영어교육(사실 이 영어교육도 회화 위주의 짚풀배이 교육이긴 하지만)을 실시하면 된다.

도대체 왜 새 정부는 영어에 '몰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유길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우리나라 요보호아동(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18살 미만 요보호아동이 한 해 평균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위기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

요보호아동의 증가는 빈곤, 실직, 가정폭력, 미혼모의 증가 등이 주요인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느 하나 가정의 보호 없이는 양육될 수 없고 가정의 붕괴는 결국 아동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는 집단 수용보호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50여년 전에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으로, 입양으로 양육 방법을 바꾸도록 권고하면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하면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를 이

뤼다.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1990년초 어린이재단 등 민간기관에서 처음 시작돼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 정부가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3년 전국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면 확대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은 입양과 유사하지만 수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법적 권리나 책임이 없고 아동보호도 장기보다는 단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입

양과 다르다. 가정위탁보호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이 가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한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정위탁을 통해 정이 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미래이고 국가의 장래인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은 세계 최저 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최우선 과제야 하는 과제이다.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뱀의 특수 기관들



네발 달린 포유류들이 보기에 파충류들은 엄청 불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화는 그들을 발 대신 비늘을 세우게 했고 온 몸의 근육을 리듬이 칼하게 만들어 마치 땅 위에서 나는 듯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리 빠른 편은 아니지만 풀숲이나 작은 구멍만 주변에 있다면 얼마든지 천적들보다 재빠르게 달아날 수 있다.

사냥을 할 때는 조용히 기다린다. 마치 개구리가 혀로 파리를 낚아채 듯 몸의 앞쪽을 이용해 순식간에 사냥감을 덮친다.

죽기를 앞서서 차분히 지켜보고 큰 구렁이류는 엄청난 압박을 가해 희생동물을 압사시킨 후 천천히 한 번에 삼킨다.

사냥감보다 느린 주력은 절대감을 지닌 침판기관에 의해 보완된다.

그리 빠른 편은 아니지만 풀숲이나 작은 구멍만 주변에 있다면 얼마든지 천적들보다 재빠르게 달아날 수 있다.

◇최종 목적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빼앗긴 문화재 되찾기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건가

문화재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자존심이다.

얼마전 미국 예일대학이 인가문명의 유적지 마추피쿠 유물 4천여점을 폐루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놀랐다.

이 같은 결정은 약탈·도난 문화재의 반환을 놓고 날로 확대되는 약탈국과 피약탈국 사이의 갈등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강화도 외교장각 도서 297책을 약탈한 프랑스는 물론 일제 때 수많은 문화재를 반출한 일본에 대해서도 그저 눈치만 살핀다.

정부는 프랑스의 외교장각 도서, 일본이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 환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례·규칙 만들어 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지하철 출구를 막 빠져 나오는 순간 앞서 가던 남자 4명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담배를 꺼내 물었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일 수밖에 없다.

담배 연기를 자주 맡으면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태아에 옮겨져 태아가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이세영·광주시 관산구 비아동

시설

'전소된 송례문' 광주·전남은 안전한가

국보 1호인 송례문(남대문)이 불에 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번 화재는 방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화재 진압도 문제부상이다. 초기 진화 과정에서 발화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 불길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역대 선거에서 견제세력 없는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신당-민주당 합당 쇄신만이 살 길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이 11일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

당당의 통합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구여권 단일 진영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대세론'과 '견제론'이다.

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보 1호의 방재 시스템이 이렇진대 다른 문화재는 오죽하겠는가.

소화기와 소화전 등 기본적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그러나 소화전이나 소화기 10년은 허투투이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대형 참사를 부른 것이다.

지역 문화재 관리·보호에 허점이 없게 불길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지역 문화재 관리·보호에 허점이 없게 불길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無等鼓

'6조7척역 달러' 울 들어 이달 초까지 세계 증권시장에서 증발해버린 돈이다.

이러한 중국의 갑부들도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재산을 날렸다.

그렇다면, 미국증시가 급등하면 한국증시도 한국증시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들먹인다.

그렇다면, 미국증시가 급등하면 한국증시도 한국증시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들먹인다.

디커플링



*/기현호 경제부장 khhh@kwangju.co.kr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